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채널 구독하기

Weekly 제123호
2024.10.10.(목)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 EU·통상** EU, 산림전용방지규제(EUDR) 적용 시기 12개월 연기 제안
- 미국·에너지** 美 상원의원, 역내 탄소세 및 탄소국경세 법안 발의
- 미국·물류** 국제항만노동자협회(ILA), 美 동남부 항만 파업 잠정 중단
- 일본·통상** 日, 反덤핑 관세에 우회수출도 대상으로 포함

주간 이슈 포커스

- EU·통상** EU, 中 전기차 상계관세 최종 부과 결정

원자재 뉴스 PLUS

- 화학** EU,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하 PoPs) 규정에 따른 HBCDD 규제 강화

II. 월간 공급망



소재·부품·장비 품목 심층분석 - 수산화리튬

I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차세대 배터리 분석 - 전고체 배터리

IV. 공급망 소식통



2024 중소·중견기업 EU 공급망 실사 대응 컨설팅 지원 서비스 안내
동남아 수출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에너지경제연구원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EU, 통상 EU, 산림전용방지규제(EUDR) 적용 시기 12개월 연기 제안

10.2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동 규제*의 적용 시기를 12개월 연장하여 대기업은 '25.12.30일부터, 중소기업은 '26.6.30일부터 적용 개시할 것을 제안

* EU 산림전용방지규제(EUDR) : 산림파괴 및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 기존 안의 경우 대기업은 '24.12.30일부터, 중소기업은 '25.6.30일부터 적용

- 앞서 동 법안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법안 시행 시기가 연기되어야 한다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
- 다만 실제 법안 적용 시기가 연기되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동 개정안에 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
- 한편 동 연장 제안 외에도 집행위는 EU 산림전용방지법 이행 지침과 국가별 위험도 평가 방법론 및 최신 질의응답서를 발표

핵심 키워드

EUDR

공급망 실사

출처: EU 집행위 보도자료('24.10.02)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미국, 에너지 美 상원의원, 역내 탄소세 및 탄소국경세 법안 발의

9.19일(현지시간) 美 민주당 상원의원 딕 더빈(Dick Durbin)은 역내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미국 청정미래기금법(America's Clean Future Fund Act)을 발의

- 동 발의안은 제정 2년 후 미국 내 화석연료 생산업체에 CO₂ 배출 1톤당 6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며, 제정 4년 후 비화석연료 탄소 고배출 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
- 아울러 ▲독립적인 연방 기관 설립, ▲농업의 탈탄소화, ▲저소득층·중산층 대상 탄소세 수입의 75% 환급 등을 포함

핵심 키워드

탄소세

청정미래기금법

출처: 딕 더빈 美 상원의원 보도자료('24.09.19),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 71호('24.09.26)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미국, 물류 국제항만노동자협회(ILA), 美 동남부 항만 파업 잠정 중단

 10.2일(현지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국제항만노동자협회(ILA)*는 美 해운연합(USMX)과의 잠정 합의에 도달하여 파업을 중단하고, 10.5일부터 업무에 정상 복귀한다고 보도

* 국제항만노동자협회(International Longshoremen's Association, ILA): 美 대서양 연안 14개 항구 노동자 8만 5천 명이 가입한 복미 최대 노동조합

▶ 지난 10.1일 국제항만노동자협회(ILA)는 노동자 일자리를 위협하는 항만 자동화* 금지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14개 항구, 96개 항만 시설 파업 돌입

* 화물 적재·하역에 사용되는 크레인, 게이트, 컨테이너 운반 트럭 등

▶ 동 파업의 장기화 시 美 동부 지역 물류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양측이 매년 시급을 4달러씩 6년간 총 62% 인상하는 임금 계약에 합의하며 10.3일 파업 종료

▶ 협회는 '24.9월 만료된 단체협약을 '25.1.15일까지 연장하고 美 해운연합과 노동자 일자리 보호문제에 대해 지속 협상할 예정

핵심 키워드

물류 파업

자동화

출처: CNN('24.10.04), 워싱턴 경제통상 리포트 36호('24.10.01)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일본, 통상 日, 반덤핑 관세에 우회수출도 대상으로 포함

 9.2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日 정부는 반덤핑 관세에 중국産 철강재 등 우회수출 제품도 부과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 현행 제도는 원산지과 제품을 핀포인트로 지정하여 적용하고 있어, 제품의 소재·부품을 제3국으로 옮겨 가공하거나 제품 성분 및 사양을 일부 변경할 경우 과세 대상에 미포함

▶ 향후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수출 제품이나 가공 등을 통해 크기를 변경하는 제품에도 과세함으로써, 중국産 철강재 등 과도하게 저렴한 가격의 제품이 日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어

▶ 美·유럽 등 G20 대부분의 국가가 우회 수출에 대응하는 제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日 또한 우회수출 대응 강화에 동참하는 모양새

핵심 키워드

우회수출

반덤핑 관세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24.09.26), 일본 경제 브리핑 34호('24.09.30) 등 언론보도 KOTRA 도쿄무역관 종합

주간 이슈 포커스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EU, 통상 EU, 中 전기차 상계관세 최종 부과 결정

- 10.4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회원국 투표 결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최종 부과안이 채택되었다고 발표
- EU는 상계관세 부과와는 별도로 중국과 함께 보조금 문제 해결에 적합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 중이라 언급

中 전기차 상계관세율 변화

- 현지 언론에 따르면, EU 회원국 27개국 중 佛·伊 등 10개국*이 관세 부과에 찬성했으며 獨·헝가리 등 5개국은 반대, 스웨덴 등 12개국은 기권

* 프랑스·이탈리아·폴란드·네덜란드·불가리아·덴마크·아일랜드·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 EU 인구의 최소 65%를 차지하는 15개 회원국이 반대표를 던져야 관세 부가가 부결되나, 최종적으로 5개국 반대에 그침
- 독일은 자동차 제조 관련 단체와 노조의 반대로 관세 부과 반대
- 지리자동차(Geely)에 인수된 볼보(Volvo)가 소재한 스웨덴은 기권

구 분	상계관세율(%)			최종 관세율(%) (기존 10%+상계관세율)
	잠정 상계관세율 (7.4일)	확정 상계관세율 초안 (8.20일)	확정 상계관세율 조정안 (9.9일)	
BYD	17.4%	17.0%	17.0%	27.0%
Geely	19.9%	19.3%	18.8%	28.8%
SAIC	37.6%	36.3%	35.3%	45.3%
기타 조사 협조 기업 (Chery·GWM·NIO 등)	-	9.0%	7.8%	17.8%
기타 조사 非협조 기업	20.8%	21.3%	20.7%	30.7%

- 최종 상계관세율은 10.30일까지 관보게재 예정으로, 상기 관세는 5년 동안 부과될 예정이나, 기간은 집행위 재량에 따라 변동 가능
- EU 관계자들은 10.30일 이후에도 분쟁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힘

핵심 키워드

대중제재

상계관세

출처: EU 집행위 보도자료(24.10.04), Euractiv(24.10.04)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화학

EU,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하 PoPs) 규정에 따른 HBCDD 규제 강화

☐ EU는 브롬화 난연제인 HBCDD*의 제한 농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PoPs 규정을 활용, ▲의도적 PoPs의 생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 ▲ 배출시설 PoPs 저감 등을 추진

* 헥사브로모사이클로데케인(HBCDD): 폴리스티렌 단열재에 사용되는 핵심 난연제로, 독성이 강하고 체내에 축적돼 면역체계 교란 및 중추신경계 손상을 초래하는 유해 물질

➡ 해당 규제는 10.17일에 발효될 예정으로, 집행위는 오는 '26.1.1일까지 영향 평가 및 검토 진행 예정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10월 1주)

비철금속 | 中 경기부양책 추진으로 동 가격↑, 주요국 생산 차질로 니켈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1~9월	전년비(%)	9.4주	10.1주	전주비(%)
동	8,478	9,133	7.7	9,651	9,792	1.5
니켈	21,474	17,089	△20.4	16,488	17,515	6.2
아연	2,647	2,687	1.5	2,965	3,119	5.2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동) 中 경기부양책 추진 및 美 경기둔화 우려 완화에 따른 가격 상방압력 발생

➡ 광저우시 등 주요 도시의 부동산 구매 규제 완화로 건설경기 회복 기대감 제기

☐ (니켈) 니켈 주요 생산기업인 中 Tsingshan社は 니켈 원광 공급 부족으로 인도네시아 광산 감산 결정

➡ 마다가스카르 Ambatovy 니켈 광산의 원광 수송 파이프라인 파손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 제기

철강 | 中 경기부양책 추진으로 철광석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1~9월	전년비(%)	9.4주	10.1주	전주비(%)
연료탄	173.32	135.11	△22.0	143.38	144.10	0.5
원료탄	295.71	254.47	△13.9	190.55	204.05	7.1
철광석	119.32	112.14	△6.0	94.62	96.04	1.5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 분광)

☐ (철광석) 中 경기부양책 추진에 따른 건설경기 개선 기대로 철광석 가격 상승압력 발생

☐ (유연탄) 이스라엘-이란 간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유가 상승이 에너지원 가격 상승 견인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10월 1주)

희소금속 | 中 국경절 연휴에 따른 광종 가격 미고시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1~9월	전년비(%)	9.4주	10.1주	전주비(%)
페로망간	1,266	1,221	△3.5	1,170	-	-
탄산리튬	35,697	13,203	△63.0	10,420	-	-
수산화리튬	37,972	12,205	△75.9	10,051	-	-
코발트 (U\$/lb)	17.82	16.58	△6.9	15.50	15.50	-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330,258	263,827	△20.1	252,100	-	-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78,383	54,577	△30.4	61,580	-	-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中 국경절(10.1일~10.7일) 연휴로 10월 1주차 코발트 외 광종 가격 미고시

에너지 | 美 고용 지표 호조세, 이란-이스라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으로 원유 가격 ↑

품목	연평균 (U\$/bbl)			주간평균 (U\$/bbl)		
	'23년	'24년	전년비(U\$/bbl)	9.4주	10.1주	전주비(U\$/bbl)
두바이유	82.10	81.47	△0.63	73.83	73.43	△0.40
브렌트유	82.17	81.69	△0.47	73.22	74.21	0.99
WTI	77.60	77.49	△0.10	69.49	70.45	0.95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원유) ▲美 고용 지표 호조세, ▲이란-이스라엘 간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으로 유가 상승압력 발생했으나, OPEC+ 생산 정책 유지 및 美 원유 재고 증가 등으로 상기 상승폭 제한

- ADP社에서 발표한 美 9월 민간 부문 고용 건수는 14.3만 건 증가하여 시장 예상치인 12만 건을 크게 상회
- 10.2일(현지시간) 개최된 OPEC+ 회의에서 생산 정책 변경은 없었으며, 초과 생산국에 대한 감산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
- 동 회의에서 OPEC은 이라크·카자흐스탄·러시아 등이 9월 예정된 감산과 보전 조치를 완전히 이행했다고 밝히며, 향후 완전한 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언급
- 9.27일(현지시간) 기준 美 상업 원유 재고는 4억 1,693.1만 배럴로 전주 대비 388.9만 배럴 증가

월간 공급망

◆ 소재·부품·장비 품목 심층분석 - 수산화리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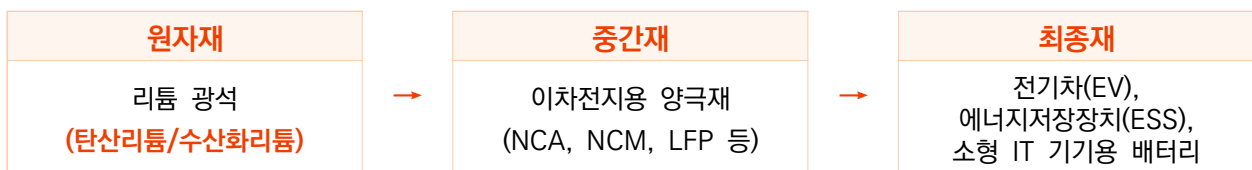
작성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수산화리튬 품목 개요

- 수산화리튬은 리튬에서 추출되는 무기화합물로, 강한 염기성과 수용성,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는 백색의 결정성 고체
- 전기차,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양극재 원료 중 하나로 전기차용 고밀도, 고용량 배터리에 주로 사용됨. 특히 니켈과의 합성이 용이해 니켈 함량이 높은 NCM(니켈, 코발트, 망간) 양극재와 NCA(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양극재 제조에 필수적
- 전기차 시장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수요 확대에 따른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중국 의존도 및 가격 변동성이 높아 국산화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중

수산화리튬 가치사슬

[표 1] 수산화리튬 가치사슬



수산화리튬 산업 동향

- 리튬은 칠레, 호주, 중국 등 특정 지역에 매장량이 편중되어 있으며, 최근 중남미 국가의 자국 이익을 위한 자원 국유화 전략의 영향으로 국제적 수급 불균형 발생

* 멕시코('22년), 칠레('23년)는 리튬의 전략적 중요성에 따라 리튬 국유화를 선언, 리튬 자원과 산업을 국가에서 관리·감독하는 계획을 발표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해외우려기업(FEOC) 요건 시행에 따라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 수급에 대한 공급망 다변화, 자립화 시급

* FEOC로 규정된 국가의 기업, 단체, 기관의 핵심광물을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 시, 보조금 혜택 지원 불가 (리튬이 포함된 핵심광물은 '25.1월부터 적용)

국내 수출액 추이 ('19년~'23년)

'23년 수산화리튬의 수출액은 121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175.5% 증가

[표 2] 수출액 변화 추이(최근 5년)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금액(천 달러)	784	752	7,623	39,822	121,893

국내 수입액 추이 ('19년~'23년)

'23년 수산화리튬의 수입액은 6,186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대비 69% 증가

[표 3] 수입액 변화 추이(최근 5년)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금액(천 달러)	380,837	437,552	663,407	3,660,745	6,186,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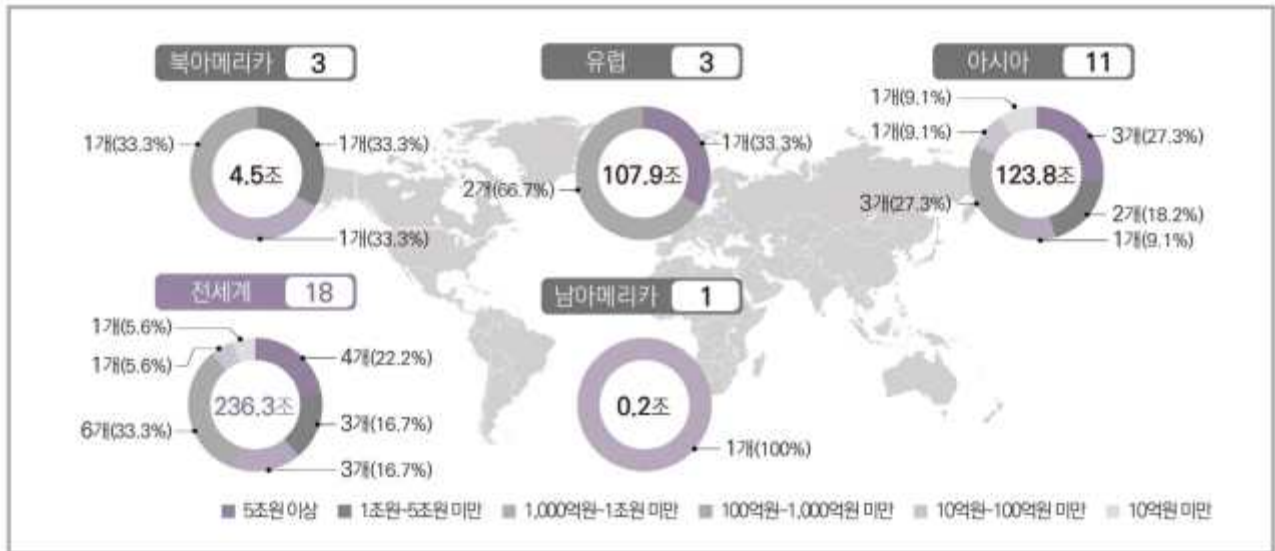
수산화리튬 기업 동향

	국내	국외
기업명	A사	(미) Albemarle Corporation
	B사	(칠) SQM
	C사	(중) Ganfeng Lithium

- 미국의 Albemarle Corporation은 세계 최대 리튬 생산업체로, 남미의 염호와 호주의 광산에서 리튬을 생산하고 있으며 수산화리튬과 탄산리튬 제품을 모두 공급 중
- 리튬 최대 매장국인 칠레의 SQM은 글로벌 리튬 생산 2위 기업으로, '23년 연간 전 세계 리튬의 18%를 생산 중이며, 국내 S사에 5년간 수산화리튬 57,000톤을 공급하는 계약 체결 추진
- 중국의 Ganfeng Lithium은 중국 최대의 리튬 화합물 제조업체로, 수산화리튬과 탄산리튬을 포함한 다양한 리튬 제품을 생산. 전기차 배터리용 수산화리튬 생산에 집중하고 있으며 글로벌기업 T사에 '25년까지 리튬 장기 공급 계약 추진
- 국내 A사는 '24년 4월 국내 최초 광석리튬에서 수산화리튬을 추출하는 자체 기술을 개발·적용하여 수산화리튬 국산화에 성공
 - * A사는 '23.11월 전남 울촌산업단지에 수산화리튬 1공장을 준공 및 '24년 2공장을 건설 중, 완공 후 연간 43,000톤의 리튬 생산능력 확보 계획을 발표
- 국내 B사는 탄산리튬을 수산화리튬으로 전환하여 수산화리튬 생산하고 있음. 삼성SDI와 '33년까지 15만 4,000톤 규모의 수산화리튬 장기 공급 계약 체결하였으며, 호주의 리튬업체 아이오니아와 미국 네바다주 리튬 광산 개발 관련 MOU 체결

- 국내 C사는 이차전지 소재기업인 D사를 인수, 수분함량을 줄인 무수수산화리튬 생산을 추진 중, 무수수산화리튬은 수산화리튬의 수분함량을 줄여 양극재의 부피 축소 및 에너지밀도를 높이는데 효과적

[표 4] 수산화리튬 주요 생산기업 현황



*출처: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23 GVC 산업분석 보고서

수산화리튬 기술 동향

- 리튬의 수급 불안정 및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리튬의 회수율을 높이는 기술과 더불어 리튬을 대체하거나 리튬 사용 효율을 높이는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 한국화학연구원은 이차전지 수명 단축의 주원인을 해결, 기존 복합소재 기술 대비 수명이 3배 이상 우수한 새로운 리튬 복합소재 개발에 성공함('24.1월 논문 게재)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리튬이차전지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99.5% 이상의 고순도 리튬이차전지 양극재 원료로 재자원화하는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개발에 성공,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재활용 기술로 핵심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데 기여함
- 리튬이온 배터리의 대체재로 나트륨 배터리가 부상중. 나트륨 배터리는 기존 리튬배터리 대비 안전성, 경제성이 부각되는 반면, 에너지밀도와 효율성이 낮아 지속적 개발이 필요
- 국내 S사는 폐기된 리튬이온배터리에서 수산화리튬을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 환경과학기술원 연구소에서 기술 실증 작업 진행
- 국내 L사는 저품질 탄산리튬을 활용해 이차전지 배터리급의 초고순도(99.995%) 탄산리튬 및 수산화리튬 제조 기술을 개발, 국내 및 중국에 특허 출원함

출처 및 참고자료

-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23 GVC 산업분석 보고서 및 GIVC 시스템
- ▶ 한국무역협회 K-STAT, 국내 품목 수출입 현황
- ▶ 삼정KPMG 경제연구원, 삼정인사이트 vol.84(2023)
- ▶ 한국산업은행 KDB미래전략연구소, 글로벌 공급망(GVC) 핵심품목 연구
- ▶ KEIT, 양극/음극 원료 및 소재에 대한 공급망 이슈
- ▶ 언론, 보도자료 및 기업 홈페이지 정보 등

공급망 더 알아보기

◆ 차세대 배터리 분석 - 전고체 배터리

리튬이온전지의 성능이 이론적 한계에 근접하고, 리튬이온전지에서 사용하는 전해액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고체 배터리가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 알아보자.

☐ 전고체 배터리

➡ (정의)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여 양극, 음극, 전해질 등 주요 구성요소가 모두 고체로 되어있는 이차전지

*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이온이 움직이는 통로를 제공하여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

- ▶ (분리막) 리튬이온전지는 양극과 음극의 물리적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분리막이 필요하나, 전고체 전지는 고체 전해질이 분리막의 역할을 대신하여 별도의 분리막이 없다
- ▶ (음극) 리튬이차전지는 음극활물질로 흑연을 사용하나, 전고체 전지는 리튬 금속도 음극재로 사용 가능하다

* 이론 용량(mAh/g) : 흑연 372, 리튬 금속 3861

➡ (작동원리) 기존 리튬이온전지와 작동 원리가 동일하며 리튬 이온의 전지내 이동에 의해 충전·방전된다.

- ▶ (충전) 양극의 리튬 이온이 음극으로 이동
- ▶ (방전) 음극의 리튬 이온이 양극으로 이동

➡ (종류)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 크게 황화물계, 산화물계, 유기 고분자계로 구분된다.

- ▶ (황화물계) 이온전도도* 등 기술적인 특성이 우수하고 대량 양산화에 유리하지만 황과 수분이 반응하면 독성물질인 황화수소가 생성되어 공기 중 안전성이 취약하다

* 전해질 내 리튬 이온의 이동 속도

- ▶ (산화물계) 이온전도도가 양호하고 공기 중 안전성이 우수하나, 전해질과 전극 사이 접촉 계면 형성이 어려워 고온 소결 공정이 필요하다
- ▶ (유기 고분자계) 다양한 형상으로 제작이 가능하고 기존 액체 전해질과 생산 공정과 유사하나, 이온전도도가 낮고 고온 환경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 (장·단점) 기존 리튬이온전지 대비 높은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 등은 장점이나, 기술적 문제와 낮은 경제성이 단점이다.

① 장점

- ▶ (안전성) 화재의 위험이 없고 전해질 누액, 폭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 ▶ (에너지밀도) 전고체 배터리는 셀*의 적층을 통해 높은 에너지밀도를 구현할 수 있어,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개선할 수 있다

* 전기에너지를 충·방전할 수 있는 전지의 기본단위

- ▶ (충전시간) 분리막이 없이 고체 전해질 사이로 리튬 이온이 이동하여 충전시간이 빠르다(황화물계에 한정)

② 단점

- ▶ (출력) 액체 전해질에 비해 낮은 고체 전해질의 리튬 이온전도도로 인해 배터리의 출력이 저하된다
- ▶ (계면저항) 고체 전해질은 고체 양·음극활물질간 접촉계면이 작고 계면저항이 커서 배터리 성능 저하가 유발될 수 있다
- ▶ (덴드라이트) 리튬 금속을 음극으로 사용시 충·방전이 반복됨에 따라 음극 표면에 나뭇가지 모양의 돌기가 형성되면서 화재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 전고체 배터리 시장 전망

- 🔍 (전망) 전고체 배터리는 2025~2027년에 양산이 시작되어 2035년경에 전체 이차전지 시장의 약 10%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SNE리서치)
- ▶ 전체 이차전지 생산능력 전망(GWh) : ('2028) 4867 → ('2035) 9049
- ▶ 전고체 배터리 생산능력 전망(GWh) : ('2028) 33 → ('2035) 950

📊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업 동향

- 🔍 (국내) 국내 배터리 3사 및 완성차 업체에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
 - ▶ (삼성SDI) 국내 배터리 업체 최초로 파일럿 라인*을 조성하고 양산 기술 확보에 주력
- * 실제 양산용 라인을 구축하기 전 시험 생산을 위해 마련하는 라인
- ▶ (LG에너지솔루션) 초고에너지밀도 셀 구현을 위해 음극에 활물질이 없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한편, 반고체 배터리* 생산기반을 구축
- * 전해질이 유기용매 겔 형태의 반고체 상태인 이차전지
- ▶ (SK이노베이션) 황화물계·고분자-산화물 복합, 두가지 전고체 배터리 개발 투트랙 추진
- ▶ (현대차그룹) 전고체 배터리를 여러개로 묶어 모듈 단위로 테스트 중
- 🔍 (미국)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로 발판으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주도
 - ▶ (퀀텀스케이프) 빌게이츠와 폭스바겐으로부터 약 10억달러를 유치받아 2025년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대량 생산할 계획
 - ▶ (솔리드파워) 삼성, 현대차, BMW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2027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중
- 🔍 (일본) 전고체 배터리 기술개발에 집중하여 기술력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 (도요타) 1995년부터 전고체 전지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2028년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상용화가 목표
- 🔍 (중국) 정부 주도의 산·학·연 연구 플랫폼을 조성하여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전고체 배터리의 대안으로 반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
 - ▶ (전고체 배터리 연구 플랫폼) CATL·BYD 등 주요 배터리 기업과 대학·연구기관·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국 전고체 배터리 산학연 합동 혁신 플랫폼(CASIP)'이 '24년 1월 출범하여 공동 학술교류·기술개발 추진
 - ▶ (CATL) 에너지밀도 500Wh/kg 이상의 반고체 배터리 개발 중
 - ▶ (위라이온) 에너지밀도 360Wh/kg의 반고체 배터리를 차량에 탑재하여 장거리 주행 시연
 - ▶ (니오) 반고체 배터리를 장착해 양산되는 세계 최초의 전기차 모델 공개
- 🔍 (유럽) 외부 스타트업과 협업하여 전고체 배터리 개발
 - ▶ (폭스바겐) 美 스타트업 퀀텀스케이프와 전고체 배터리 기술개발 중이며 최근 샘플테스트 성과 발표
 - ▶ (BMW) 美 스타트업 솔리드파워와 전고체 배터리 프로토타입 라인을 구축할 예정

공급망 소식통

2024 중소·중견기업 EU 공급망 실사 대응 컨설팅 지원 서비스 안내

작성 KOTRA 중견기업팀

개요

- 사업명 : 2024 중소·중견기업 EU 공급망 실사 대응 컨설팅 지원 서비스
- 수행사 : EY 한영회계법인
- 사업 기간 : 참여기업 선정 완료일로부터 '25.2.28.(금)
- 모집 기간 : '24.10월 상시모집
- 지원 내용 : 기업별 공급망 실사 컨설팅, 대응 보고서, 내재화 지원 등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16개사	-
사업 비용	참여기업 부담금 6,556,250원 (VAT 포함) * 1개 기업당 컨설팅 비용 13,112,500원 중 KOTRA가 50% 지원	부담금은 수행사와 별도 계약 후 직접 납부
세부 지원 사항		
기업별 공급망 및 ESG 대응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망 진단) 참가기업의 주요 수출국 규제 현황 등 요구사항에 대한 공급망 현황 분석 및 진단 (ESG 진단) 참가기업의 세부 활동 및 성과 조사를 통한 재무·비재무 ESG 리스크 관리 및 ESG 경영 수준 진단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맞춤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체크리스트) 기업의 공급망 및 ESG 진단 결과 반영하여 글로벌 공급망 실사대응을 위한 기업별 체크리스트 개발 (전략 설계) 진단 결과 기반 EU 공급망 실사 주요 영역별 전략과제 도출 및 중장기 로드맵 제언 (내재화·실행력 강화 지원) 영문보고서 작성 및 관리체계 개선 지원 	

신청·문의

- 신청 방법: [\[신청하기\]](#) 클릭 후 안내에 따라 진행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접수 : seungja86@kotra.or.kr / Hunyoung.Yoo@kr.ey.com
- 관련 문의 : ☎ 02-3460-7231(KOTRA 중견기업팀) / ☎ 010-9883-0102(한영회계법인)

◆ 동남아 수출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

작성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개 요

- ▶ 사업 기간 : 2024년 9월 ~ 2024년 12월
- ▶ 선정 안내 : 모집 마감 이후 선정 여부 발표 예정
- ▶ 지원 대상 : 국내 수출 중소기업 (실화주) *포워드 신청불가
- ▶ 지원 노선 : 동남아-인도 주요 8개 노선
- ▶ 대상 화물 : 드라이 컨테이너 (일반잡화 운송용 기본 컨테이너)
- ▶ 지원 내용 : ① 중소기업 전용선복 제공, ② 우대운임 제공
- ▶ 협력 기업 : (선사) 고려해운, 장금상선/흥아라인, 남성해운, 천경해운, 팬오션, 범주해운, 동진상선 (물류사) LX판토스

☐ 노선별 지원 선복 및 담당선사

출발지	도착지 국가	도착지 항만	전용선복 (TEU/월)	담당선사
부산	인도	첸나이	120	고려해운
		나바쉐바	280	
	싱가포르	싱가포르	80	장금상선/ 흥아라인
	말레이시아	포트클랑	80	
	태국	방콕	80	
		람차방	80	
	베트남	호치민	480	남성해운, 천경해운, 팬오션, 범주해운, 동진상선
		하이퐁	480	

* 사업 기간 중 담당선사 및 전용선복 변동가능

※노선별 우대운임은 하단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문의

- ▶ 신청 방법 : [\[신청하기\]](#) 클릭 후 안내에 따라 진행
- ▶ 관련 문의 : ☎ 02-6000-5754/5935(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 kcsn@kita.net

글로벌 경제지표 [’24.10.8일 (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환율

구 분	’22년	’23년	’24.8말	10/4	10/7	10/8	전일비	전년말비
₩/U\$	1,264.50	1,288.00	1,336.00	1,333.70	1,346.70	1,349.70	0.22	4.79
선물환(NDF, 1월물)	1,265.30	1,286.80	1,333.30	1,331.40	1,344.60	1,347.20	0.19	4.69
₩/CNY	181.44	181.37	187.56	188.16	191.65	191.21	△0.23	5.43
₩/¥100	945.56	912.25	921.19	913.12	907.05	912.70	0.62	0.05
¥/U\$	133.73	141.19	145.03	146.06	148.47	147.88	△0.40	4.74
U\$/EUR€	1.0617	1.1105	1.1077	1.1030	1.0966	1.0983	0.16	△1.10
CNY/U\$	6.9630	7.1092	7.0934	7.0176	7.0176	7.0612	0.62	△0.68

* ’23년 평균 환율: (₩/U\$) 1305.9원, (₩/¥100) 931.6원 / ’24년 평균 환율(’24.1.1일~현재): (₩/U\$) 1352.6원, (₩/¥100) 895.4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3년 최저(해당일)	12/29(’23년)	10/7	10/8	전일비	’23년 최저비	전년말비
원유(두바이)	70.31(3.20일)	77.08	78.13	78.98	0.9	8.7	1.9
					1.1%	12.3%	2.5%
철광석	97.35(5.24일)	140.50	109.10	104.65	△4.4	7.3	△35.9
					△4.1%	7.5%	△25.5%
비철금속	구리	7,812.50(10.5일)	8,476.00	9,816.50	△197.5	1806.5	1143.0
					△2.0%	23.1%	13.5%
	알루미늄	2,068.50(8.21일)	2,335.50	2,655.50	△86.5	500.5	233.5
					△3.3%	24.2%	10.0%
니켈	15,885.00(11.27일)	16,300.00	17,875.00	17,420.00	△455.0	1535.0	1120.0
					△2.5%	9.7%	6.9%

반도체

구 분	’21년	’22년	’23.12월	’24.8말	’24.9말	10/3	10/4	10/7	10월(~7)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99	3.07	1.74	1.98	1.96	1.93	1.93	1.93	1.93
(%, YoY)	29.9%	△23.0%	△14.8%	35.8%	33.0%	28.5%	28.2%	27.1%	24.7%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55	7.25	6.38	6.32	6.71	6.77	6.77	6.75	6.77
(%,YoY)	14.7%	10.7%	△2.3%	0.0%	6.1%	6.1%	6.0%	5.3%	5.7%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12/30(’22년)	12/29(’23년)	9/13	9/20	9/27	전주비(9/20)	전년말비
SCFI	1107.55	1759.57	2510.95	2366.24	2135.08	△9.8%	21.3%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12/23(’22년)	12/22(’23년)	10/1	10/2	10/3	10/4	10/7	전주비(10/4)	전년말비
BDI	1515	2094	2084	1978	1941	1928	1907	△1.1%	△8.9%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gvc_monitoring@kotra.or.kr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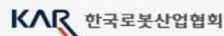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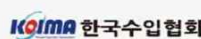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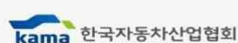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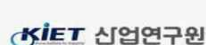


카카오톡 채널 구독

주관기관



협력기관



본지의 내용은 산업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